올 가을 패션은 '보랏빛'… 포도코어·신백코어 뜬다

광주신세계, 퍼플 계열 라인업 강화

니트·가방 등 다양한 스타일링 연출

샌드베이지 등 매장 맞춤형 코디 제안



올가을 패션업계에서는 보라색을 활용한 '포도코어'와 백화점 특유의 고급스러운 감성을 강조한 '신백코어'가 새로운 트렌드로 주목받고 있다. 사진은 광주신세계 본관 5층 아틀리에 나인 매장에서 직원이 포도색 니트와 바지를 선보이고 있는 모습. 〈광주신세계 제공〉

올 가을 패션업계에서는 보라색을 활용한 '포도코어'와 백화점 특유의 고급스러운 감성을 담은 '신백코어'가 새로운 트렌드로 주목받고 있다.

5일 ㈜광주신세계에 따르면 이러한 패션 트렌드에 발맞춰 다양한 색상과 디자인의 상품을 선보이고 있다.

포도코어는 보라색을 활용해 개성을 표현하는 패션 트렌드로, '퍼플코어(Purple-core)'라고도 불린다. 라벤더를 연상시키는 연보라색부터 보라색보다 짙은 자주색인 플럼(plum), 레드와인 계열의 딥퍼플(deep-purple)까지 다양한 보라색 계열의 아이템을 조합하는 것이 특징이다.

특정 의류에 국한되지 않고 티셔츠와 니트, 카디건 등 의류는 물론 가방과 모자, 운동화 등 패션 소품까지 폭넓게 활용할 수 있어 일상에서도 부담 없이 시도할 수 있다.

보라색이 다소 강렬하게 느껴진다면 화이트와 아이보리, 차콜, 블랙 등 차분한 색상의 의류와 함께 매치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보라색 아이템이 전체 스타일에서 자연스럽게 포인트 역할을 하도록 연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흐름은 올해 가을·겨울 파리 패션위크에서도 주목받으며 패션 브랜드들의 상품 구성에도 반영되고 있다. 광주신세계 입점 브랜드에서도 보라색을 활용한 다양한 스타일을 만나볼 수 있다.

여성 패션 브랜드 '샌드베이지'는 매장 입구 마네킹에 연보라색 바지와 버건디 색상 상의를 조합해 계절감 있는 스타일을 연출했다. 보라색 니트 등 다양한 아이템도 함께 선보이며 고객들의 선택 폭을 넓혔다.

'아틀리에 나인'은 보라색 계열 상의를 한자리에 배치하고 회색 바지와 조합한 스타일을 제안하고 있다. 보라색과 조화를 이루는 차분한 색상을 활용해 개성은 살리면서도 일상에서 활용하기 좋은 코디를 선보이는 것이 특징이다.

이와 함께 소셜미디어(SNS)를 중심으로 '신백코어'라는 표현도 관심을 모으고 있다. 신세계백화점과 패션 스타일을 뜻하는 '놈코어(Normcore)'를 결합한 신조어로, 백화점별로 떠오르는 이미지와 스타일을 패션에 반영한 표현이다.

특히 신백코어는 신세계백화점의 정통 럭셔리 이미지를 바탕으로 화려하면서도 존재감 있는 아이템을 활용하는 것이 특징이다.

김윤철 광주신세계 패션팀장은 "최근 유행하는 패션 트렌드에 맞춰 차별화된 상품을 다양하게 선보이고 있다"며 "포도코어부터 신백코어까지 최신 패션 흐름을 반영한 상품을 광주신세계에서 만나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안태호 기자

신세계그룹, 쓱데이 막바지 할인 혜택 풍성

신선식품·가전·위스키 등 최대 80% 저렴

백화점·아울렛·편의점·온라인몰도 참여

신세계그룹이 오는 8일까지 진행하는 쇼핑 행사 '쓱데이'의 막바지 할인 혜택을 확대한다. 이마트와 트레이더스, 백화점 등 주요 계열사가 식품부터 패션·가전·가구까지 다양한 상품을 할인 판매하며 고객 잡기에 나섰다.

5일 신세계그룹에 따르면 이마트는 이날부터 8일까지 신선식품과 간편식, 디지털 가전 등을 최대 50% 할인한다.

보조개 황금사과(2.5kg)는 신세계포인트 적립 시 6천990원에 판매하며, 제주광어회와 광어·숭어 모둠회도 할인 가격에 선보인다. 특히 7일에는 러시아산 대게 5t 물량을 반값에 판매할 예정이다.

먹거리 할인 행사도 이어진다. 5일부터 7일까지 과자 할인 행사를 진행하고, 8일까지는 감자와 당근을 대상으로 '무한담기' 행사를 마련했다. 가공식품과 생활용품은 2개 이상 구매하면 최대 50%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디지털 가전 구매 혜택도 강화했다. 아이폰 18 프로와 갤럭시 Z폴드 8 등 주요 제품에 행사 카드 할인 혜택을 적용한다.

트레이더스는 자체 브랜드(PB) 상품 할인과 함께 글렌파클라스 15년 CS 한국 전용 라벨 상품을 3천병 한정 판매한다. 이마트 에브리데이도 사과와 고구마, 생굴 등 신선식품과 생필품을 최대 50% 할인한다.

편의점 이마트24는 '쓱데이 와인 스크래치 상품 모음전'을 열고 라벨이 오염된 와인을 특별 가격에 판매한다.

백화점과 아울렛도 행사에 동참한다. 신세계백화점은 6일부터 8일까지 패션·뷰티·가전·식품 등 주요 인기 상품을 할인하는 클리어런스 행사를 진행한다. 신세계사이먼은 프리미엄 아울렛 전 점에서 '메이크 유어 쓱(Make Your SSG)' 사은행사와 헤비 아우터 할인 행사를 열고 가족 단위 고객을 위한 즐길 거리도 선보인다.

온라인 계열사 할인도 풍성하다. 신세계라이브쇼핑은 패션과 간편 먹거리 등을 최대 77% 할인하며, 신세계까사는 까사미아 온라인몰에서 가구와 소품 등을 최대 80% 할인 판매한다.

W컨셉은 패션 잡화와 생활가전 등을 최대 92% 할인하는 클리어런스 행사를 진행한다. G마켓도 '빅스마일데이'를 통해 브랜드 PC와 노트북 등을 최대 62% 저렴하게 판매한다.

/안태호 기자

롯데百광주점, 다양한 크리스마스 소품 선봬

크리스마스와 연말을 앞두고 유통업계가 시즌 분위기를 살린 상품과 매장 연출에 나선 가운데 롯데백화점 광주점에서도 다양한 크리스마스 소품을 선보이고 있다.

롯데백화점 광주점은 5일 "8층 포커시스 매장에서 크리스마스와 연말 모임에 활용하기 좋은 시즌 소품을 판매한다"고 밝혔다. 〈사진〉

매장에서는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더해줄 다양한 디자인의 오르골을 비롯해 눈 내리는 겨울 풍경을 담은 스노우볼, 음악과 함께 장식 효과를 낼 수 있는 크리스마스 트리 뮤직박스 등을 만나볼 수 있다. 특히 소품 하나만으로도 집 안이나 모임 공간에 연말 특유의 따뜻하고 아기자기한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어 크리스마스 선물이나 홈파티 장식용으로도 관심을 끌고 있다.

백화점은 상품 판매뿐 아니라 매장 환경을 통한 시즌 분위기 조성에도 힘을 쏟고 있다. 광주점 곳곳에 크리스마스 테마 장식을 설치하고 매장 내 음악도 연말 분위기에 맞춰 구성해 방문객들이 쇼핑과 함께 크리스마스의 설렘을 느낄 수 있도록 했다.

/안태호 기자



GS25, '혜자로운' 브랜드 디자인 개편

전용서체·패키징 등 개발 마케팅 활발

GS리테일은 편의점 GS25의 '혜자로운' 브랜드의 패키지 디자인을 개편했다고 5일 밝혔다.

혜자로운은 합리적 가격과 높은 품질을 내세운 GS25 대표 간편식 브랜드다. 2023년 재출시된 이후 3년 만에 누적 매출 5천억원을 넘었다.

GS25는 혜자로운 브랜드의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차원에서 지난 9월부터 패키지 디자인을 바꾸는 리뉴얼을 순차적으로 하고 있다.

브랜드명을 전면에 배치한 디자인을 적용했으며 이를 위해 글씨체 'GS혜자로운체'를 개발했다.

'혜자로운 미니쿠키' 등 젊은 소비자를 겨냥한 상품도 출하고 청년층을 겨냥한 마케팅도 벌인다.

GS리테일에 따르면 혜자로운 브랜드 고객의 GS25 재방문율은 90%에 달하며 객단가는 일반 고객 대비 42% 이상 높았다.

GS리테일 관계자는 "전용 서체와 패키징 등을 개발한 이번 리뉴얼과 브랜드 마케팅을 통해 전 세대를 아우르는 국민 간편식 브랜드로 성장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